

분석대상으로서의 경관과 감각대상으로서의 경관

- 달실마을 공동조상 무덤의 풍수경관 사례를 중심으로 -

송원섭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경상북도 봉화의 달실마을은 한국의 대표적인 동족마을들 중 하나로 손꼽힌다. 조선 중기 학자였던 충재 권벌(1478-1548)이 처음으로 정착한 이후, 지금까지 그의 후손들이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집성촌이다. 달실마을 사람들은 그들의 정체성을 '달실 권가(the Kwon family of Darsil village)'로 규정하는데, 이는 그들의 집합 의식(collective conscience)이 같은 계보적 뿌리(권벌)로부터 기인한 같은 혈족이라는 사실에 바탕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

달실마을 사람들의 정체성이 '달실 권가'라는 하나의 동일한 표상으로 수렴되는데 있어서 네 명의 공동 조상들(collective ancestors)의 상징적 역할은 핵심적이었다. 네 명의 공동 조상들은 모두가 달실 권가의 1세대에서부터 3세대에 속하는 조상들인데, 그들은 마을의 입향조이자 불천위인 권벌(1478-1548), 권동미(1525-1585), 권세충(1594-1644), 권석충(1606-1634)이다. 달실마을 사람들의 집단적 정체성(달실 권가)과 네 명의 공동 조상들의 상징적 역할이라는 두 개의 사회문화적 요소들은 서로가 공명하는데, 이것의 의미는 달실마을의 종가(宗家)와 세 개의 주요 지가(枝家)들 사이의 사회적 긴장과 연결의 관계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달실마을 사람들의 사회적 정체성은 '달실 권가'라는 하나의 동일한 사회적 정체성으로 수렴된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했던 사회-정치적 메커니즘은 달실 권가의 종가와 세 개의 주요 지가들 간의 '사회적 긴장과 연결'이었다. 보다 자세히 말하자면, 달실마을 사람들은 언제나 권벌과 종가의 상징을 기반으로 하는 동일한 사회적 집단 정체성(달실 권가)과 이중적인 관계에 놓여져 있었다. 즉, 달실마을의 종가가 아닌 지가에 속한 구성원들은 그들의 사회적 정체성을 권벌의 후손이라는 사실에서 찾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이 속한 지가의 대표 조상들(권동미, 권세충, 권석충)의 후손이라는 사실에서도 찾는다. 달실마을 사람들은 권벌과 종가 중심의 달실 권가

의 집단적 정체성에 참여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대립한다. 달실마을 사람들 개개인은 권벌과 종가 중심의 사회의 내부와 외부에 동시적으로 존재하는 셈이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강조해야 할 점은, 달실마을 사람들이 부분적으로는 권벌과 종가 중심의 달실 권가의 집단 정체성에 속해 있고 또 부분적으로는 지가 중심의 개별적 정체성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달실마을의 사회적 정체성은 오히려 두 개의 다른 정체성들의 근본적인 통합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논리적으로 대립되는 두 개의 결정체의 종합, 또는 동시발생의 방식으로 밖에는 설명될 수가 없다. 결국, 달실마을 사람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동일한 정체성인 달실 권가는 종가와 세 개의 주요 지가들 간의 그러한 '사회적 긴장과 연결'의 변증법적 관계 속에서 가능했던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네 명의 공동 조상의 상징적 역할은 핵심적일 수밖에 없었다. 네 명의 공동 조상들은 달실마을의 종가와 주요 세 지가들의 상징적 깃발이었다. 그것은 종가와 주요 세 지가들 각각의 지파들을 서로 구분 지어주는 표지였으며, 각 지파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표식이었다. 각 지파들의 개별적 집단 정체성은 그들의 공동 조상들과 밀착되어 있었던 것이다. 네 명의 공동 조상들의 상징성이 존재하였기에, 종가와 세 주요 지파들의 개별적 집단 정체성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러한 개별적 집단 정체성이 존재하였기에, 종가와 세 개의 주요 지가들 간의 사회적 긴장과 연결의 변증법적 원리가 작동될 수 있었던 것이었다.

이와 같이, 달실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네 명의 공동 조상들이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상징적 존재였던 만큼, 그들의 무덤은 모두 풍수지리적 관점에서의 명당 자리에 위치한다. 달실마을 사람들은 풍수라는 하나의 경관 독해 렌즈를 통하여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을 바라보았다. 공동 조상들의 무덤을 풍수

명당의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달실 권가 사람들은 공동 조상들에 대한 유교적 맥락의 집단적 효성을 완수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공동 조상들이 지니는 특별한 상징성도 풍수 경관의 재현성을 통하여 확보될 수 있었다.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에서의 풍수 경관의 재현성은 무덤 경관의 '분석 혹은 독해'를 통해 가능했다. 즉, 풍수지리의 이론을 통하여, 공동 조상들의 무덤의 풍수 경관 요소들 (좌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대조산, 중조산, 소조산, 용맥 등)을 기계적으로 분석하고 읽어냄으로써, 그 무덤의 경관은 달실마을 사람들의 경관 경험 속에서 '풍수 경관'이 될 수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풍수의 경관 재현성을 의미한다.

하지만, 1960년대 국가의 녹화사업을 기점으로 상황은 변하게 된다. 1960년대의 녹화사업을 통하여, 다른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달실마을 주변 전체에도 조림사업이 행해졌다. 1960년대 녹화사업 이후 나무가 어느 정도 자란 약 20년 뒤부터는, 달실마을 사람들의 경관 경험에 있어서, 공동 조상들의 풍수 경관의 재현성은 자리 잡을 수 없었다. 다시 말해, 1980년대 들어서면서, 공동 조상들의 풍수 경관은 1960년대 녹화사업 당시 심어졌던 나무들로 완전히 뒤덮이게 되어 더 이상 육안으로는 공동 조상들의 무덤의 풍수 경관 요소들의 배열을 확인할 수 없게 되었다. 즉, 풍수경관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다.

나무로 뒤덮이기 이전의 명확한 풍수 경관의 모습에 대한 기억을 간직한 마을의 원로들의 경우는 비록 풍수 경관의 흔적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경관에 대한 기억을 통하여 그들의 관념 속에서 풍수 경관을 복원시킴으로써, 풍수 경관의 재현성을 유지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나무로 뒤덮이기 이전의 명확한 풍수 경관에 대한 기억이 전무한 젊은 사람들의 경관 경험에 있어서, 공동 조상들의 풍수 경관의 재현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은 분석과 독해의 대상이 아닌 단지 몸적 감각의 대상일 뿐이다. 다시 말해, 달실마을의 젊은 사람들에게는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은 더 이상 풍수지리 관점에서의 옹고/그른 경관이 아닌, 감각의 관점에서의 편안하고/불편한 경관일 뿐이다. 젊은 세대들이 몸적 감각의 대상으로서의 경관을 경험함에 있어서, 풍수 경관의 재

현성은 부재함을 의미한다.

달실마을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의 존재론적 이중성은 여기서 드러난다. 마을 원로들의 경관 경험 세계에서는 여전히 풍수지리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분석적 맥락에서 경관의 재현성이 여전히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반면에, 마을의 젊은 사람들의 경관 경험 세계에서는 몸적 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경관의 비재현성이 그 중심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경관의 재현성(분석대상으로서의 풍수경관)과 비재현성(감각대상으로서의 풍수경관)이 달실마을 사람들의 공동 조상들의 무덤 경관에 대한 경험 세계에 동시에 존재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참고문헌

1. 이상민(2015) 경관협정과 주민참여 마을만들기, 건축 59(6).
2. 이여경, 차주영, 이상민(2016) 해외 농촌 경관관리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국토연구 89.
3. 전중환(2002) 역사지리학 연구의 고전적 전통과 새로운 노정: 문화적 전환에서 사회적 전환, 지방사와 지방문화 5(2).
4. 진중현(2013) 재현 혹은 실천으로서의 경관: 보는방식으로서의 경관 이론과 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대한지리학회지 48(4).
5. 홍금수(2009) 경관과 기억에 투영된 지역의 심층적 이해와 해석, 문화역사지리 21(1).
6. Macpherson, H.(2010) Non-Representational Approaches to Body - Landscape Relations Geography Compass 4 1 - 13.
7. Macpherson, H.(2009) The intercorporeal emergence of landscape: negotiating sight, blindness, and ideas of landscape in the British countryside Environment and planning A 41 1042 - 1054.
8. Matless, D.(1998) Landscape and Englishness. London: Reaktion.
9. McCormack, D.(2012) Geography and abstraction Towards an affirmative critique Progress in Human Geography 36 715 - 734.
10. McCormack, D.(2013) Refrains for moving bodies: experience and experiment in affective spaces, Duke University Press, Durham.
11. Merleau-Ponty, M.(2012) Phenomenology of perception. London: Routledge.
12. Mies, M.(1998) Patriarchy and Accumulation On A World Scale: Women in the International Division of Labour. London: Palgrave Macmillan.
13. Mills, J. E.(1992) Spiritual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burial mound sites in the upper mississippi river basin and the practice of Feng Shui in East Asia. Minnesota: University of Minnesota.
14. Wylie, J.(2012) Dwelling and displacement: Tim Robinson and the questions of landscape Cultural Geographies 19 365 - 383.
15. Wylie, J.(2011) 'Landscape', in The SAGE handbook of Geographical Knowledge. London: SAGE Publications Ltd. pp. 300 - 315.
16. Wylie, J.(2007) Landscape. London: Routledge.